

한국의 성형 실태 및 대안 모색을 위한 포럼
『이야기하자, 압구정역 4번 출구』

목차

- 포럼을 개최하며 1 김인숙 대표
인사말 1 남윤인순 의원
.....2p, 3p
1. 예뻐지기, 끝이 없는 트랙에 갇히다 - 그리고 여성들의 이야기..... 5p
김희영(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2. 한류와 의료관광 23p
김종미(영국 Coventry University 문화미디어학과 교수)
3. 성형유희는 미디어를 타고 - 미디어에 등장하는 성형과 외모차별 문제.....30p
윤정주(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4. 의료 상업화의 침범, 미용성형산업 - 의료 측면의 규제 방안..... 35p
이상운(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원)
5. <SBS 스페셜> 그녀 뼈를 깎다 - 내 딸의 양악 수술..... 46p
박상욱(SBS, PD)
6. 미용성형과 관련된 법적 쟁점..... 49p
이한본 변호사(법무법인 정도,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팀장)

[포럼을 개최하며]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는 '성평등 복지국가 전략보고서'를 발행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2012년 후속 연구 작업을 진행하여 '성평등복지로 한국사회의 다음을 기획하다'라는 성평등 의제 및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일련의 활동을 통해 성평등 가치에 입각해 이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만이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로의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 성평등 의제 발굴을 위해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삶 속과 가장 밀접한 욕구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여성건강, 특히 아름다움을 강요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가 심각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몸에 대한 왜곡과 위축감은 10대 여학생들이 학교 체육활동에서조차 소극적이게 하고 있어, 세대를 불문하고 여성건강의 문제로 부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견 외모 가꾸기는 여성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발적이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히 신체왜곡과 외모 표준을 강요하는 한국의 문화와 사회, 경제적 배경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거리 캠페인을 통해서도 많은 여성들이 세대를 불문하고 일상적으로 가장 원하는 세상을 '다이어트 없는 사회'라고 답했습니다.

올 해 외모 가꾸기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신체왜곡과 표준을 만들어 가는 사회 메커니즘에 대한 문제제기와 최소한의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이 포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무분별하게 외모왜곡문화를 확산시키는 미디어와 의료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급선무입니다. 이 포럼이 목표하는 바는 '몸 다양성 보장법'(가칭)의 마련일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성별화 된 몸 규범을 강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정책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삶의 공존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는 다양한 외모, 다양한 신체의 상존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간단하지 않을 것이며 아직 그 구체적 실체를 만드는 일에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그 단초를 만들어야 하며 그 시작으로 오늘의 포럼이 의미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필요가 급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며 기여이 발제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몇 년에 걸친 작업에 늘 같이 해 주시는 남윤인순 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2013년 7월 11일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인숙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남윤인순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제안해주시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한국여성민우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성평등복지로 한국사회의 다음을 기획하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었습니다. 당시 '다양한 몸이 허용되는 사회, 평생건강을 고려하는 사회'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성평등복지의 주요 영역이 되어야한다는 전제로 왜곡된 몸의 이미지와 외모압력의 무차별적 확산이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며 최소한의 정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작업으로서의 이번 토론회가 더욱 뜻 깊은 것 같습니다.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김희영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님과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님, 김종미 코벤트리대학교 문화미디어학과교수님, 이상운 건강과 대안 연구원님과 박상욱 SBS PD님, 이한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외모관리'는 어느새 성별과 나이와 상관없는 '시대적 과제'가 된 듯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해외통계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2011년 기준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13.5명으로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한 나라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SAPS)에 따르면 2011년 세계 성형시장규모는 200억달러(21조원)이며 우리나라 성형시장의 규모는 25억달러(5조원)로 세계성형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은 '성형'이나 '외모관리'를 의료관광의 주요 상품으로 삼아 시장 활성화와 창조경제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성형의료시장을 더욱 비대하게 만들고 왜곡된 몸의 이미지를 확산 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갖 기사와 미디어, 광고에서 쏟아지는 '성형' '다이어트' '외모관리'는 지나치게 일상화되어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도한 열풍에 대한 염려와

의문은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제기는 개인의 욕망실현이라는 이름으로 번번이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되었던 ‘의료’로서의 성형과 ‘건강’의 관점,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이번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외모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부당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몸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수정하고, 의료산업으로서의 성형산업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제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과제를 찾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과 노력을 쏟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건강이 넘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국회의원 남윤인순

예뻐지기, 끝이 없는 트랙에 갇히다

-그리고 여성들의 이야기

김희영(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¹⁾)

목차

I. 들어가며 : 외모관리, 더욱 심해졌고 심각해졌다

II. 본론

1. 노동시장, 더 은밀하고 정교하게

- 1) <자기 관리>의 평가 척도로서, 외모
- 2) 직종에 따른 차이는 둔화되고, 정도는 심화되는

2. 외모, 불쾌하지만 내재화하는

- 1) 외모차별의 생생한 현장성
- 2) '자기만족'이라는 주문

3. 여성 안의 과도한 동일시

4. 의료와 미용, 경계는 무너졌다

- 1) 체중감량과 건강 사이에서
- 2) 의료'시장'이 통제하는 여성의 몸
 - 트렌드의 변화 : 자연스러움이라는 미션
 - 환자도 고객도 아닌, 다시 여성

III. 나가며 : 속상하고 피로한 사회, 대안은 없는가

I. 들어가며 : 외모관리, 더욱 심해졌고 심각해졌다.

“어렸을 때에 비해 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엄마, 아빠랑 헬스장가면 아줌마, 아저씨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더 마른사람들이 더 강박적으로 열심히 해요. 가장 심하게 느낀 게 강남역에서 친구랑 서있는데 어떤 남자가 “나 코끝 좀 세우려고”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또 헬스장에서 샤워하는데 어떤 몸매 좋은 여자가 “나 이번에 미니 지방흡입 하려고.” 이러는걸 보면서... 아, 진짜...”(사례 4, 22세)

1) 본 글은 여성건강팀(김인숙 대표, 정술아, 문지은 활동가)의 인터뷰 분석회의 때 나눴던 논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성형, 다이어트와 같은 외모 관리가 나이와 성별을 뛰어넘은 '시대의' 과제임을 체감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TV나 포털 사이트에서 연예인들의 성형 고백이나 시술 경험을 나누는 장면은 우리의 매일을 잠식하고 있으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흘러나오는 성형 광고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들이다. 위 인터뷰 내용처럼 어디서든 쉽게 시술이나 다이어트 정보를 나누는 것을 듣고 볼 수 있는 한편, 의료 행위로서의 성형에 대한 열풍이 정도 이상이라는 '사회적 염려'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기도 하다.

쉽게 몸을 변형하거나 '고치는' 것이 가능한 사회는 예뻐지기를 끊임없이 요구 받는 여성에게 해방구일까,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하는 것일까. 한국사회의 여성들이 몸에 미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으로 성형을 실천하는 것이 과연 아름다움에 대한 개개인의 과도한 집착이자 여성들의 '본능'적 실천일까. 아니면 어떤 복합적인 요소들이 그 배후와 배경에 자리 잡아 이를 부추기고 있지는 않는가.

본 글은 민우회 “다르니까 아름답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형,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22명의 여성들의(10대 4명, 20대 10명, 30대 6명, 50대 2명) 인터뷰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는 외모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 노동, 자아존중감과 외모 등의 주제로 구획을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이후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인터뷰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결국, “여성들이 성형이나 다이어트를 왜, 어떤 순간에 결심하는가”에 대한 간단치 않은 답변이었다. 현재 인터뷰가 정리 중이기 때문에 본 글은 포럼과 관련된 일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서 구성했으며 주요 경향성이나 공통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II. 본론

1. 노동시장, 더 은밀하고 정교하게

개인들에게 몸에 관심을 갖고 시간과 금전을 투자하라는 설득은 몸이 자아를 대변하게 된 시대상황 속에서 가능하다.(임인숙, 2003)

1) <자기 관리>의 평가 척도로서, 외모

“취업이 안 되면 본인 스스로 이유를 많이 찾잖아요. 저는 학벌이라든지, 영어 성적이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더 이상 찾을 이유가 없어서 외모나 인상, 내 말투에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한 게, 더 이상 스펙으로 채울 수 없는 걸 다이어트로 채운 것 같아요. 이유를 찾다 찾다 외모가 아닌가 생각한 것 같아요.” (사례17, 25세, 신입사원)

“알바면접을 갔는데... 그 소개시켜준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쪽에서 저더러)되게 미련하지 않냐고 그래서 내 친구가 개가 덩치가 있고 그래서 그래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보신거면 잘못보신거라고. 한 방 먹여줬는데... 약간 그런거? 크다고, 쪽 큰 건 아니지만 덩치가 있다고 둔하다고 생각하거나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사례22, 25세, 취업준비생)

“요새는 신입사원 카페가 있어요. 우리 기수들. 사진도 올리고 하는데 저도 사람들 사진을 보게 되더라고요. 누가 예쁜가 안 예쁜가. 이렇게요. 지금 회사에 들어가면 새로운 평가를 받는 시기잖아요. 새로운 사람 만나고. 걱정이 되요. 좋은 외모를 가지면 좋은 대우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싶죠. 친한 후배한테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남자 많은 회사에 예쁜 여사원은 정말 대우받고 산대요. 회사의 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저희 회사도 남자가 많은 쪽이거든요. 저는 예쁜 여성도 아니고 신입 사원치고는 나이고 많고, 최고령일텐데. 면접 볼 때도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제 졸업했냐는 얘기 디게 많이 들어요. 어쨌든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걱정이 많이 되요. 첫인상은 아무래도 외모니까요. 나는 아직 가야할 길이 먼 것 같아서요.”(사례 17, 25세)

“자기관리를 하지 못하면 일도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관리를 잘하는 거고, 자기관리를 잘하는 거는 외모를 꾸미고, 살을 찌우면 안 되고. 이게 다 같이 있어요.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잘 꾸며야 한다.”(사례1, 37세, 보험설계사)

저는 뚱뚱한 거하고 자기관리하고 왜 연관을 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뚱뚱해도 열심히 했고, 성적도 좋고 그런데 그럼 나는 자기 관리 안한 사람인가? 싶고요. 그건 아닌데.(사례 17)

10여 년 전, 키와 몸무게 고지까지 요구하던 채용 시 노골적인 용모 차별의 문제는 해소된 듯 보이나, 실제 문제는 더 교묘하고 정교하게 노동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경쟁의 가속화를 합리화 하고, 취업에 대한 불안을 심화시키면서 여성들에게 ‘몸’은 자기 관리를 평가하는 척도로 작용하는 것을 넘어 인격화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뇌시킨다.

여성들은 스펙 쌓기의 일환으로 1여년에 걸쳐 20kg을 빼기도 하며(사례 17), 좋은 인상과 용모단정이라는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취업 조건에 만족시키기 위해 각종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 이력서에 좋은 사진을 찾아내는 기술을 연마하기도 하고(사례 17), 덩치가 크면 미련해 보인다는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며(사례 22) 외모 관리의 필요를 끊임없이 절감하게 된다.

2) 직종에 따른 차이는 둔화되고, 정도는 심화되는

인간성마저 외모에 의해 압도되고 결정되는 오늘날, 외모 관리는 출구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된 것 같다. (『친밀한 적』, 160p)

“살이 찐 사람이 의료적인 조언을 하면 환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병원에서는 다른 체형의 이미지를 원해요. 기타 몇 개 병원은 승무원 면접처럼 병원이 원하는 취향대로 간호사를 뽑아요(...) 꼭 그래야 한다는 병원의 지침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병원에서 요구하는 체형이 있어요. 건강해보여야 하나 마른? 그런 이미지를 병원에서 요구할 때도 있는데. 의사가 ‘ooo간호사 살 좀 빼’ 하고 내놓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구요. 간호사 말고 여자의사에게도 그런 이미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구요.”(사례21, 20대 후반, 신생아실 간호사)

“용모의 복장 안에 머리는 어떻게 가르마는 어떻게 잔머리는 실뿔으로 고정해야 하고 뭐 머리가 길었을 때는 웨이브로 말아야하고 저희같은 샌들도 페티큐어를 꼭 발라야 하고 이런 식의 내부규정은 있어요. 손톱은 가지면 안되고 네일은 뭐 어떻게... 다 있어요(...) 매장에서 아마 그루밍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예요.”(사례 15, 화장품서비스, 30대)

“우리 때는(10년 전) 외모는 약간 조금 더 도움이 될까? 이 정도 수준이었고 그 때 좀 더 고민했던 가장 큰 게 언어였거든요. 총 면접을 5차까지 보는 데 체력관리랑 뭐 수영해야 되고 영어인터뷰가 두 번이나 있고 학력? 공부 쪽이 훨씬 더 컸던 거 같고 외모 쪽은 부차적이었고 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성형은 다 하고 들어오는 것 같구요. 요즘은 후배들이 다 똑같이 생겨서 이름 이쪽에 불러놓고 이쪽에 보고 아까 개가 여기 있는 거 같고 뭐 이런 느낌... 인턴 1년 정도 하고 나서 퇴직금 1년 정도 받으면 그거 가지고 또 성형하고 있다가 그 성형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때는 성형하고 들어왔다고 말하는 거 자체가 대단히 얘기하기가 창피한? 얘기였다면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도 이제는 선배들까지 다 옮겨 붙어서 내일 어디 어디 병원 가서 상담받으러 가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더라구요.(사례16, 30대, 승무원 노조)

거의 2년 가까이 싸운 건데 용모복장지침 폐기하고 바지 만들어달라고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는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거꾸로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승무원들도 꽤 많았어요. 치마가 더 시원하고 편한거 아니야? 이게 왜 문제가 되지? 나는 이걸로 한 번도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이 없고 매니큐어 바르는 거 이쁘잖아? 라고 반문하는. 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불편하지 않으면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선택권 자체가 박탈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하는 거죠.

남자는 안경 끼고 비행기를 탈 수 있는데 여자는 쪽머리를 하고 안경을 쓸 수 없어서 렌즈를 끼워야 하거나 수술을 해야 하는 것 자체를 요구하는 거....이런 문제를 문제화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 문제제기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승무직은 운송직이다, 안전활동직이다. 그게 우선시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직이다. 제일 우선시 되어 있는 거 자체가 이 뿐만이 아니에요. 여성이 일하는 대부분의 환경 속에 보면 금융업에 일하시는 분, 보육업에 일하시는 분들, 간호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 그 사람이 중요하게 드러내야 하는 업무특성보다 더 그 사람을 평가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요구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육교사들한테도 그 때 뭐 통계 냈는데 아이들한테 보육 교사 세워놓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가 와 가지고 예쁜 쪽으로만 간다면서요. 인제 그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해 보이고 발전하게끔 만드는 우리 사회의 약간 이상한 인식들?”(사례16)

인터뷰 참여자의 직업은 화장품 판매와 같은 서비스직부터 물류업이나 사무직, 자연업, 상담직 등 다양했으나 업무의 성격에 관계없이 외모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방대하게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강’을 일부 산업이나 의료계가 향유하면서 건강한 몸이 마른 몸이라는 것은 이제 거대한 진실이 되었다. 신생아실에 있는 간호사에게도 알 수 없는 기준인 “건강하지만 마른”몸을 요구하기도 하며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의사에게도 이 기준은 피해가지 않는다.(사례 21) 또한 승무원 같이 외모 규율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내재화된 문화에서 외모관리에 대한 요구는 더 디테일해지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문제제기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진 상황을 호소(사례 16)하기도 한다.

2. 외모, 불쾌하지만 내재화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정작 치료해야 할 것은 여성들에게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을 이렇게 높여놓은 이 사회이지 그러한 사회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그에 순응한 여성들의 마음만은 아닐 것이다.(『다이어트의 성정치』,138p)

1) 외모차별의 생생한 현장성

“제 주변에 고등학교 때 정말 부정교합이 심한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놀리기를 이 벽에 딱 붙어 있으면 턱부터 닿을꺼라고... 그렇게 놀리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주변에서 시선도 그렇고 거의 자기가 까이는 걸 아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성형)해도 좋죠.”(사례 4, 20대, 대학생)

“모든 사람들이 쳐다봐요. 여자 몸을... 여자들도 여자 몸 봐요.”(사례 11, 20대, 전신성형)

“내가 지금 대학에 와서 여성학을 접하고 큰 몸이 아닌가보다 이런 걸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과거에 당했던 테러의 잔념이 나에게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때 (전신성형)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밖에도 사실 남학우들은 굉장히 많이 괴롭혀요. 제가 당한 테러보다도 저처럼 통통한 몸이 큰 여학우들이 당하는 걸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자기한테 상처가 되거든요. 이거는 저랑 같은 반에서 일어난 일인데 남녀공학이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평소에 조금 포악하기로 유명한 남학우가 점심시간에 그... 몸이 큰 여학우에게 가서 도시락을 그 여학우가 먹고 있는 도시락을 던진다든가 무슨 너 따위랑은 밥도 못 먹겠다고, 밥 맛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 여학우가 울면서 뛰쳐나간다든가. 그게 진짜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가슴에 쌓인 것 같아요.”

“몸이 큰 여자들은 길거리에서 몸이 큰 여자들을 가장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봐요. 자기 혐오가 있기 때문에 길거리를 가다보면 저를 가장 찌러보는 건 똥똥한 여자들이예요. 깊은 혐오감의 눈빛(...) 실은 저도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침이에요. 침.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쪽 한국 길거리에서... 이게 근데 진짜로... 개인의 착각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진짜인 부분도 있거든요. 남자들은 똥똥한 여자가 지나가면 침 뱉으면서 욕을 한단 말이에요. '에이씨' 이러면서 되게 많아요. 그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테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솔직히 수술을 하고 나서는 침 뱉으면서 욕하는 것까지는 못 봤는데... 지금도 남자들이 침을 뱉으면 그런 생각이... 아 홍대는 근데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신촌은 되게 심해요.”(사례 11)

“살찐다는 거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위기에요. ‘그래야 네가 상처받아서 뺄다.’ 뭐 이런거요. 근데 그거에 순응해서 나도 살을 빼긴 했으니... 몇 년 전에 되게 똥똥한 여자가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택시기사가 폭행했다는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근데 저는 70킬로 때도 입고 싶은 거 맘대로 입었거든요. 비키니도 입고 미니스커트도 입고요. 제가 그 기사보고 흥분해서 이 남동생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동생이 “왜 누나도 맞을까봐 그래?”

이러더라고요. 이러면서 택시 기사한테 용자라고 하고... 솔직히 그런 여자가 미니스커트 입는 건 '시선 공해'라고도 얘기했구요. 그 때 화가 났죠. 그런데 내가 화를 내면 '뭐냐, 피해의식이냐.' 이렇게 되고요."

(사례 17, 20대, 인턴)

"엄마 같은 경우엔 허벅지랑 엉덩이만 빼면 진짜 좋다고 그래요. 친척오빠를 설날에 만났을 때 진지하게 '너의 몸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어요. 소개팅남도 예의 없게 '다음 번에 만날 땐 빼서 만나자'고 얘기했구요."(사례 20, 20대 초반, 대학생)

외모 차별은 비단 개그 콘서트에 등장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온갖 비하와 희화화의 장면만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웃지 못할 '현실'이라는 것이다. 여성들은 몸에 대한 온갖 지적과 범죄에 가까운(사례 11)일을 당하지만 그것은 무례하고 부당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 상처 받아서 뺀다"(사례 17)는 기이한 합리화에 저당 잡히기도 한다. 문제 의식은 피해의식으로 환원되고 "몸 안에 차곡차곡 쌓인" 상처는 끊임없이 다이어트와 성형을 다짐하게 하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 여성들의 외모 관리를 단순히 여성 개인의 선택이나 '집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한 번쯤은 몸에 대한 지적이나 비교, 노골적인 배제나 차별의 경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실제 인터뷰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몸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그것이 최소한 무례하다는 인식조차 없는 사회에 여성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자기만족'이라는 주문

"그리고 제발 좀 다른 사람들은... 제 친구들을 비롯해서 제발 다른 사람 기준에 맞추지 말고 자기만족 때문에 살 빼고 자기만족 때문에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는 말리지 않는데요."(사례 4)

"교정할 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살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 때 그 뭐 친구들이 특히 제 주변에 있던 남자친구들이 '너 살 빠지니까 예뻐졌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 때 교정기를 아직 하고 있었는데도 어깨가 으쓱하면서 교정을 하길 잘 했다는 생각을 초반에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되게 자기 만족인 거 같아요. 뭐... 실제로 그들이 뭐 얼마나 저를 가지고 외모 평가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스치듯 누군가가 했던 한마디에 되게 만족스

러워 가지고 막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하길 잘했어’ 생각하고…(사례 7, 30대 초반, 마케팅)

“친구 중에 한두 명 있는데 개네 되게 말랐거든요. 정말 말랐는데 뼈 밖에 없을 정도로 말랐는데 평소랑 다를 거 없는데 살췌다고 밥 안 먹고. 개도 자기만족인 것 같아요. 딴 사람이 말랐어 이래도 아니야, 나 똥똥해 이러면서 빼는”(사례10, 10대)

“운동을 꼭 하잖아요. 그러면 살이 좀 빠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술 약속이 생겨요. 아니면 다른 이유들로 잠깐 운동을 쉬는 동안 살이 또 막 찌는거죠. 그럼 아… 돌아가야겠다. 너무 나를 안일하게 냅뒀다. 나한테 죄를 지었네 이러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시 갔다가 그냥…”(사례4)

“텔레비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 어떤 여자가 실력은 똑같은데 예쁘지 않아서 떨어진다고 고민을 하더라고. 그래서 성형을 해야 하나? 상담을 받더라고. 이왕이면 예쁜 게 좋지만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성형도 자기만족인 것 같아.”(사례9, 50대)

외모로 인한 차별이나 배제의 문제를 전면에 드러내기 어려운 것은 외모 관리의 ‘자기만족’이란 속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에게 외모로 인해 불쾌했던 경험이나 부당한 대우를 제기하는 것은, ‘Before’로 자신을 머무르게 한다는 두려움을 갖게 한다. 여성들은 어떻게든 이것을 탈피하고 도약하기를 요구 받는 사회에 살고 있다. TV나 포털사이트에는 일상적으로 “성형, 다이어트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가 도배되고 있다. 여성들에게 외모 가꾸기는 “외모 때문에 대우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사회를 향한 ‘복수’이면서도, 자신에 대한 신뢰나 존중감을 끊임없이 상실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것은 ‘잘 관리된 외모’라는 것이 현대 여성들에게 중요한, ‘자신에 대한 만족’과 긍정을 얻는 통로로서 지나치게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버린 데 있다.²⁾ 어느 순간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와 타인의 시선 사이에서 몸이나 외모 가꾸기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는 데 길을 잃을 수밖에(사례 7) 없다.

3. 여성 안의 과도한 동일시

“우리 집은 외모지상주의의 집이에요. 아빠가 제일 심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긴 남자 좋아하고, 예쁜 여자 좋아하고요. 저는 막내인데 보통 부모님들은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쁘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아빠는 저한테 '예

2) 『다이어트의 성정치』, 138p

빠지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이러세요. 그리고 엄마 친구 분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에이, 그렇게 안 못생겼네.' 이러세요. 엄마가 우리 딸 너무 똥똥하고 못생겨서 어디 데리고 나가지 못하겠다는 말을 많이 하셨대요(...) 외모에 대해 부모님 영향이 많이 커요. 어렸을 때 생각나는 건, 제가 예닐곱 살 때 밥을 먹을 때, 아빠가 중간에 '그만' 이러면 그만 먹었었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체격이 크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이후에 억압을 너무 많이 받아서..."(사례 17, 20대, 인턴)

"올 초 고모가 우리집에 놀러왔는데, 고모가 제 얼굴을 보더니 '딸내미를 저렇게 났됐냐고, 턱에 보톡스도 안 맞춰주고 뭘했냐고' 하시더라구요. 저희 집이 턱이 사각이거든요(...) 할머니랑 고모랑 가시면서 보톡스 맞는데 보태라고 20만원을 주셨어요. 사촌 중에 제일 예쁘다고 했던 애가 성형을 제일 많이 했어요. 쌍꺼풀도 원래 있는데 라인을 좀 더 확실하 잡고 싶다고 다시 하고, 필러도 맞고, 보톡스도 하고, 피부도 했어요. 고모가 개한테 병원 물어보라고 해서 저도 그 병원에서 보톡스를 맞았어요."(사례 17)

"더 웃긴 거는 이제 엄마는 딸들이 안 예쁘면 같이 안 가요. 안 다녀요. 그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엄마도 예쁜 딸이 좋은 거예요(...) 저희가 네 자매거든요? 언니가 이렇게 누워서 저를 보더니, "00 이리로 와봐." 이러더니 "앉아 봐." 그래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원피스 입지 마"래요. 그래서 왜 입지 말래냐! 그랬더니 아, 반바지까지는 허용을 해주겠다. 하지만, 치마는 안되겠다. 치마는! 어, 힘들다. 아, 그러니까 46키로가 될 때 까지는 원피스 입지 말아라. 치마 입지 말아라. 지적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 그 때부터 치마 안 입잖아(...) 배고파서 막. "아, 배고프다" 냉장고를 열면 "오이 깎아먹어." 그래서 오이를 하나씩 다 깎아먹으려고 하면은, (언니가) "그거 반에 반만 먹어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럼 또 옆에서 또 보고 있어요. 그럼 반만 깎아요. "그거 반은 왜 깎니?" 그럼 "반은 언니 줄게." 그러고. 나는 반만 먹고. 그런거죠. 그리고 운동할 때는 항상 같이 따라 나와서 같이 운동을 해요. 귀찮은데, 혼자 하고 싶은데"(사례 6, 20대초반, 대학생)

"예전에 엄마 일기장에서 "00가 다시 살이 찌기 시작해서 큰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공원에 나가서 운동을 시켰는데 00가 자꾸 들어가자고 한다."를 봤는데. 그 때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근데 아, 뭐야. 그게 좀... 그랬어요. 슬펐다고 해야 하나? 저녁밥을 5시에 먹고 야식을 못 먹게 하고 일찍 재운다던지. 아니면 저희 엄마는 다섯 시 이전에는 먹고 싶은거 다 먹어도 되는 데. 밥 안주고 굶기고의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리고 막 수영 많이 시키고, 태권도 시키고, 에어로빅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보건적으로 문제가 되는 식의 다이어트를 시킨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엄마가 다이어트를 다섯 살 부터 시켰다고 말을 하면 되게 놀래요. 예전에는 "아, 우리엄마 되게 독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 엄마가 그렇게 안했으면 '난 계속 통통한 사람이었다면? 취업시장에서도 되게 위축된 사람으로

있지 않았을까?”(사례2)

“수술을 딸이랑 같이 했는데 그 후에 만족도가 높았어요. 대부분 애들이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애들한테 하자고 끌고 갔어요. 작은애는 콧대가 좀 낮아서 코 했어요. 이는 내가 교정을 못했으니깐 교정해주고 딸들 내가 시켰어요. 작은 딸이 한다고 하니깐 큰딸은 콧대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하겠다고 해서 개도 했어요. 같이 했어요.”(사례5, 50대)

“지금 양 부모님이랑 남동생이랑 사는데 사실 어머니가 (체중이) 되게 심하구요. 현재 체중이 100kg가 넘으시거든요. 사실은 몸이 큰 여자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저한테 굉장히 뭐라고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이중적인 모습인데... 밥을 몇 끼 챙겨주시면서도 또 먹지 마라 하시고...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주시는 편이죠 근데 저는 굉장히 잘 이해를 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도 잇을 수가 없는 게 초등학교 때 어머니랑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멈췄는데 빠 거리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되게 소심하게 죄송합니다 이러시는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엄마 뭐가 죄송하냐고 우리가 먼저 탄건데’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똥똥해서 그래 그러는데... 어린 마음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엄마는 뭐 취업을 할 때나 저희 어머니는 이제 몇 년에 한번씩 직장을 바꾸시는 편이예요. 요리사로 일을 하시는데 면접 볼 때 몸 때문에 그렇게 힘들대요. 대놓고 말을 한대요. 그렇게 몸이 똥똥해서 요리는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한 30대에서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항상 울고 오셨어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빌어야 취직이 되고 이걸 아니까 저한테 굉장히 뭐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런 엄마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방황 안하고 그냥...”(사례 11)

가장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으로서의 몸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몸은 나인 동시에 네가 되기도 한다. 딸의 몸은 어느새 부모의 프라이드가 되기도 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기도 한다.(사례 17) 자매 관계 안에서는 끊임없이 서로를 채찍질하는 감시자가 되기도 하며(사례 6), 외모로 인해 소외 받은 자신의 경험을 투사시키기도(사례 11) 한다. 여성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서로의 감시자가 되는 것은 여성 내부의 과도한 동일시의 모습이다. 얼마 전 KBS <안녕하세요>에 방영된 “고도 비만인 여동생의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고민인 언니의 사연”은 인터뷰에서도 자주 등장한 에피소드이다. 비만인 사람은 게으르다는 수식은 헬스 트레이너인 언니의 전문성에도 흠집이 나기 때문에 여성들의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은 몸에 대한 피로감을 배로 가중시키기도 한다.

4. 의료와 미용, 경계는 무너졌다.

...비만이라는 전염병을 음울하게 경고한다. 이런 현상들은 입을 모아 외친다. 당신의 몸은 고치고, 개조하고, 증강해야 할 캔버스다. 그러니 동참하라. 즐기라. 뒤처지지 마라.(『몸에 갇힌 사람들』, 24p)

체중감량과 건강 사이에서

“저는 초경을 할 때는 생리통이 없었는데, 매년 지나면서 생리통이 생긴 케이스예요. 그 때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산부인과도 가보고 일반 병원도 가봤었는데, 산부인과의선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그랬고 근데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게, 일반 병원에 갔어요. 내과였나? 그런데 그 의사가 남자의사였어요. 근데 누워서 배를 몇 번 눌러보더니 한다는 소리가 갑자기 살이 찌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리통이 심해진 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산부인과의에서도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무슨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멋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게, 되게 불쾌했어요.(한의원이면 노골적으로 살 빼라 한다던지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하던데... 유도를 많이 한대요. 무릎이 아파서 가도, 살 좀 빼시면 좋죠. 이러면서) 그러면서 다이어트 한약을 권하죠.”(사례2, 20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몸이 10년 넘게 유지가 되니까 걱정스러운 거지. 어떻게 보면 좀 애가 살을 빼거나 몸은 괜찮은지? 걱정스럽다고 생각하는 거 같긴 해(건강을 걱정한다고?) 건강도 걱정하고 외모도 걱정하는 거지. 관리 안한다고 하지만 지금 나는 내가 만들어낸 나의 결과물인데 어떻게 부정하겠어. 그냥 받아들였지 받아들이다가도 어느 순간 뭐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 살을 뺄 수 있는데 단식이야 선식이야 근데 그거하면 더 찌는 거야.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더 찌는 거야 그걸 반복하고 나니까 현재의 내 몸은 내가 만들었다는 거지 이게 뭔가 잘못된 내 몸이 아니라는 거야. 살이 빠지든 찌든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낸 몸인 거야,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각해서 예를 들면 사실 살이 찌면 대사증후군이라던가 관절이 아프거나 이것도 내가 만들어낸 거야. 잘잘못을 떠나서 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덜 받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지 너 살 찢어 살빼 이런 건 아니거든.”(사례 12, 30대 후반)

“한 번은 예전에 킥복싱을 2년 정도? 1년 반 2년 정도 했었는데...물론 시작은 살 빼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둘째 달부터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가서... 파워가 남다르다고 해서 관장님이 약간 제3의 성별로 취급해 줬거든요. 남자 팔굽혀펴기 40번 여자 20번 너는 30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특별관리 받으니까 재밌어서 습관처럼 다녔어요. 그래서 살이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빠졌는데, 밥 먹을 것 다 먹고 술 먹을 것 다 먹는데 살 빠지네? 그럼

이 기회에 밥 좀 굶고 살 좀 빼볼까? 했다가 굶었더니 또 스트레스가...그 때 깨달았어요. 아나는 먹을 걸로 하면 안되는구나.”(사례4, 20대)

‘건강’에 대해서 가장 과학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병원에서조차 질환에 상관없이 체중감량은 모든 해결의 열쇠가 되었다. 여성들은 내과에 가도, 한의원에 가도 정상범위와 관계없이 어디서든 체중 감량을 요구 받는다.(사례2) 어느 순간부터 건강이 목적인지 체중감량이 목적인지 본인도 알지 못한 채 운동을 하고 식이조절을 한다. 하지만 체중감량이 목표가 되는 한 운동은 몸의 움직임을 즐기거나 일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사례4) 깨닫기도 한다.

“살 빠려면 살 빼는 약 먹어야죠”(사례15)

“어떤 애는 다이어트하는데 600만원 썼어요. 일년에. 뭐 디톡스 그런 것도 해보고 마사지 이런 것도 하고 주사 있잖아요. 다리 아니고 뭐 복부도 맞고, 이런 거를 계속하고... 단식원? 이런 데도 들어가고 또 음식 먹는 것도 다이어트 제품으로 사고 막 그러는데.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난거예요. 일년 정도 했는데 부작용으로 오히려 호르몬 불균형이 왔고, 그러다보니 자궁이 안 좋아지고 자궁에 다난성... 뭐라고 하더라, 그거 생겨가지고 그것도 치료받고 다니고. 호르몬 불균형이 오니까 당연히 복부에 살이 썬서 기분도 패턴도 자주 바뀌게 되고 심해지더라고요.”(사례 6, 20대 초반)

“그 점심시간에 회사 점심시간에 다이어트 관련된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직원들끼리. 한 친구가 다이어트도 완전 다 꿰고 있어서 점심시간 통해서 자기는 이번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시작한다 정보 주면 그건 뭐야 하고 듣기도 하고. 그 친구는 한약도 먹고 다이어트 한약도 먹고, 시중에 이 얘기 되는 사람들한테 얘기 되고 있는 각종 다이어트 이런 것들 다 한 번씩은 해봤던 친구라서”(사례 7, 30대, 마케팅)

“솔직히 어떻게 모두가 다 이효리만큼 예뻐져요? 요새 사람들이 너무 말랐어요. 작년보다 그 작년보다 작년보다 더... 어머니 세대보다 말랐구요. 모두가 다이어트를 하고 모두가 깡마른 여자가 되면 그게 정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못한 여성들은 더 비정상이 되는 거고. 정상이 되는 게 점점 자기파괴적인 것이 되구요. 마음이 아파요. 문제야...”(사례 18, 20대 초반, 7년간 섭식장애)

다이어트는 ‘산업’이 되었다.(사례 15, 7, 6) 문제는 그것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우리의 일상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다.(사례 7) 가족, 친구들, 직장 등 사적, 공적 영역과

관계없이 외모 관리는 모두의 소재가 된 것이다. 외모로 인한 차별, 배제가 강화된 사회일수록 시장은 교묘하게 이 사이를 침투한다. 단기간 체중감량이라는 ‘불가능’한 목표는 기하급수적으로 산업을 팽창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다이어트 제품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며(사례 6), 이는 더 심화될 것이다. 마른 몸이 목적이 되는 한 체중감량은 신경증과 강박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비단, 여성들이 과학적인 다이어트의 방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세상 모두가 그것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 가꾸기에는 언제나 실패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외모에 몰입하는 만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몫은 증가하고, 능력과 무능력, 성공과 실패, 자기애와 자기혐오라는 틀 안에 갇히고 마는 것이다’³⁾(사례 18)

2) 의료시장이 통제하는 여성의 몸

몸을 거의 무한정 변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수시로 우리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산업과 관행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이다. (『몸에 갇힌 사람들』, 269p)

트렌드의 변화 : 자연스러움이라는 미션

“저는 옛날에는 티가 났어요. 쌍꺼풀이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좀 두껍게 하는 게 유행이라서 안한 척 하고 다녀요. 여자애들은 알죠. 개네들은 매의 눈이어서 밥 먹고 논문 연구하듯이 연구하니까. 요새는 그런 정보들 잘 안 봐요. 이제는 성형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그냥 피부 관리? 관리는 좀 받고 싶는데 어디를 뜯어 고치고 그런 거는 별로... 근데 유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쌍꺼풀이 기본인 시대가 있었고, 또 요즘에는 쌍꺼풀은 안하고 피부랑 그런데 신경을 쓰잖아요.(...) 얼굴 형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보는데... 저는 (성형을 했어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사기는 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냥 어디 가서 안한 척 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 좀 많이 해요. 그냥 많이 변하지 않고 내 얼굴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자연스러운 미?”(사례 4)

“그 A라는 언니도 면접을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면접 때문에 얼굴이 좀 부드러워 보이는 상으로 많이 바꿨어요. 사실 이목구비가 되게 뚜렷하거든요. 눈썹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되게 큼직큼직해요. 눈코입이 그리고 골격자체가 좀 큰 편이에요. 키도 크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상이 되게 썬데, 이 인상을 어떻게 하면 좀 관찮아보이게 할까?라고 해서 팔자 일단 넣고, 코 여기 좀 꺾었거든요. 이게 약간 매부리 코였는데, 매부리 코면 옆에서 봤을 때 약간

3) 다이어트의 성정치, 한서설아, 159p

좀 날카로운 인상? 예리한 인상? 이렇게 되가지고 이것도 살짝 밑으로 꺾고, 그리고 눈도 더 동그랗게 하고. 그 다음에 눈썹은 확실히 했더라구요. 그래서 일자눈썹이라고 하죠? 일자눈썹으로 그리고 다니고.”(사례 4)

“수술 후 1주일에 실밥을 풀거든요, 실밥 풀러 병원 갔는데 '나는 이미 성형인의 길에 들어섰구나. 싶더라구요.' 병원에서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는데. 사람들은 '너 성형했어? 안했어?' 이것을 묻지, 몇 개를 했는지를 묻진 않잖아요. 어차피 하나 했는데...이러고 나니 성형에 대한 마음이 더 열리더라고요.”(사례 17)

최근, 성형의 트렌드는 바뀌고 있다. 이제는 ‘칼을 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술이나 관리라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인상을 바꾸거나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사례4)이다. 주기적으로 보톡스 주사를 맞거나 피부 시술을 하게 되는 형태는 성형에 대한 거부감을 덜어낼 수 있게 하고, “한국사회에서 미용성형 결과를 평가하거나 미용성형을 하는 행위 자체를 비판하는 준거인 자연미인/성형미인의 이분법이 여성의 미용성형 실천을 훈육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⁴⁾(사례 17)

환자도 고객도 아닌, 다시 여성

“(전신 지방흡입 전에) 부작용 고지 없었어요. 좀 피곤할 수 있다 정도. 오직 미용에 관한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00씨, 배에 둘레가 크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면 주름이 질 수가 있다 거기가 그래서 뭐 복근 운동을 많이 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코 수술 할 때도 세월 오래 지나면 콧대가 그냥 내려 앉는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건강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아마 많은 경우에 그 지방흡입이라는게 사실 이 수술이 보편화되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어떤 부작용을 겪어도 이게 지방흡입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도 하니깐 그래서 사실 병원에서도 별로 그런 서류를 안쓰는 게... 왜냐면 환자들이 테클을 안 거니까...”

그리고 제가 그 때 병원 의사랑 상담하면서 들었던 게 뭐냐면 지방흡입 환자들은 거기가 종합 성형외과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하는데 지방흡입 환자들은 수술을 하고 나서 대부분 잠수를 탄대요. 왜냐면 다른 수술에 비해서 사후 관리가 정말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복근운동 하시구요. 고주파 받으시구요.’ 이런 식으로... 6개월 동안 죽을동 살동 가야 되요. 이걸 해

4) 태희원, “코리안 스타일 성형수술 : 자연스러움의 경합적 의미와 경제 및 효율성으로 이해되는 몸”(2013)

야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하기 무서운거죠. 싫은거죠. 왜냐면 내가 수술을 하긴 했지만 병원에선 갑자기 운동해! 이러니까 운동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아예 안 가다 보니까(…) 막 나는 김아중이 되어야지 이런 걸 희망하는게 아닌데 그런 환자들에게 막 그런 이상향의 몸이 되라고 거의 압박을 주더라구요. 아마 병원에서 그래서 이런 피로감이 나 부작용이 있어도 잘 드러내거나 표현을 못하는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다른 수술에 비해서 지방흡입은 몸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돈 들어서 수술했는데도 사후 관리 못한 게으른 여자 이렇게 비난을 받을게 두려워서…”(사례 11, 전신성형, 20대)

“수술 전에는 보통 미용적인 설명을 많이 하죠. 보톡스에 대해 부작용은 크게 얘기를 안해요. 무서우니까 제가 먼저 물어보죠. 그런데 부작용은 흔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랑은 상담하지 않고 상담자가 따로 있어요. 저는 20대로 보이는 남자 상담자가 했어요. 저는 광대가 고민인 언니랑 같이 갔는데, 상담자에게서 기계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시면 되구요, 이견 얼마고요. 여긴 얼마고요.' 이러는데 고기가 된 느낌이었어요. 자기도 방금 필러 맞았다고 그러면서 무섭지 않다고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꾸민 느낌의 남자였어요. 고객에게도 얼굴이나 외모를 파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이라기 보다는요.”(사례 13, 20대)

(한의원에서 가슴 확대 침술을 맞는데) 딱 이렇게 자기네들이 딱 가면은 치수 같은 걸 다 재거든요. 가슴 치수 아래치수 예전에 어떻게 했었고 그 어렸을 때 처음 성장기 때 속옷착용 어떻게 했는지 경력 같은 것도 다 물어보고 자기가 판단을 해요. 사진이나 엑스레이 같은 것도 찍으면서 이런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타진해줬던 거 같고 한 번 잘해보자 이렇게 등록할 수 있게 막 북돋아주고…사실 거기에 가 있으면 되게 많이 부끄러워요. 앉아서 막 내가 이 사람은 나 같은 사람 한 두번 만나본 거 아니겠지만 난 이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나의 개인적인 가슴을 막 보여주고 진단받고 넌 가슴의 단점이 이런 거고 지적받고 하면 너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해야지’ 하고 등록하긴 했지만 하면서도 되게 상담 받을 때도 되게 부끄러웠고 하면서도 되게 부끄러웠던 거 같아요. 내내 막 수 치스럽고… 이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내내 벗겨진 상태로 시술을 받겠다고 누워있는 상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신경 쓰이고 그랬던 거 같아요.(사례7, 30대)

“그런데 다른 병원 가면 코 하는 김에 여기도 좀 깎고 주사도 좀 맞고 그러라고 하는데 그 의사 분은 그냥…나중에 들어서 후회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주시길래…(거기서 신뢰감을 얻었군요) 그렇죠. 뜯어말려줘서.(사례4, 20대)

성형시장은 여성들이 환자나 고객으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성형수술이 명백히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문제가 수면 위로 잘 오르지 않는 것은 자기 관리로 성형을 보조해야 하는데 ‘게으름’으로 비난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사례 11)과 성형을 결정하지만 한편으로 과도하게 외모 꾸미는 자신에 대한 한심함(사례 7)을 여성들이 내재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괴(성형괴물)나 의느님(성형외과 의사)과 같은 신조어나 여성의 몸에 대한 지적과 비교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성형의 일상화를 암시하는 동시에 외모 가꾸기에 많은 시간을 매진하거나, ‘자연 미인’이 아닌 여성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기도 한다. 성형은 어떻게든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누구나 수술이 위험할 것을 알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술을 막아야 신뢰가 높아지는 의사의 ‘권력’이(사례4) 한편으로는 성형이 의료행위임을 다시금 방증한다.

최근, 지방흡입 중 마취 상태에서 의료진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피해자가 불안감에 녹취를 하여, 마취 상태에서 의료진에 의한 성추행을 알게 되었으며 현재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여성들에게 현재 의료행위로서 성형에 대한 아무런 제지나 감시 장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성형 시장이 커질수록, 자본이라는 목표가 더 선명해질수록,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더 당연해질수록, 성형 광고가 더 가까워질수록, 성형수술 현장의 비윤리성의 문제는 점차 심화될 것이다. 미용만이 목적이라는 착시효과와 병원이라는 폐쇄성이 결합되었을 때 ‘인권’이란 단어가 어떻게 추락할 수 있는지 선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정말, 이대로 좋은가?

Ⅲ. 나가며 : 속상하고 피로한 사회, 대안은 없는가.

우리는 몸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몸에 새로운 육체성을 부여함으로써, 몸을 우리가 달성해야 할 열망이 아니라 우리가 깃들여 사는 장소로 바꿔야 한다. 몸에 대한 상업적 착취와 신체적 다양성의 격감을 시급히 막아야 한다(...)

- 『몸에 갇힌 사람들』, 272p

“가족부터 일터까지, 친구부터 미디어까지” 모든 공간에서 “몸무게나 외모나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끝없고 거대한 트랙을 벗어날 다른 회로는 무엇일까.

연령과 직업을 불문하고 인터뷰한 모든 여성들에게 이상적인 몸이나 아름다운 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만족하고 받아들이는 몸”이라고 답했다. 단순히 모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경험적으로 여성들은 몸을 변형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해결’되거나,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나다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정답’과 현실 사이의 커다란 간극과 딜레마를 누가 어떻게 왜 부추기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더 먼저이지 않을까. 몸에 대한 기준이 획일화될수록 “정상이 견고할수록 자기 파괴는 강해질”(사례 18)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여성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병들 수 밖에 없다.

외모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질수록 이를 통해 이익 보는 집단을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성형이나 다이어트 시장은 필연적으로 의료나 몸에 대한 정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나 미디어에서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가령, 대중교통에서 매일 성형광고가 노출되는 것은 너무 문제적이지 않은가. 또한 민우회로도 성형 부작용 문제를 호소하는 전화가 간혹 오고 있다. 현재 성형수술로 인한 의료 사고나 부작용에 대해 호소할 창구가 어디에도 없다. 수술 과정에서 의료적인 상담의 의무화나 현재 부작용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외모로 인한 차별이나 부당한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말은 몸에 쏘인다. 인터뷰를 통해 몸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무례하거나 불쾌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운동의 이유를 다시금 느끼기도 했다. 몸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필요한 때이다.

“다르니까 아름답다”는 우리가 잊고 있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모두 느끼고 있는 그 가치를 말이다.

참고자료

- 임인숙, 2003, “한국사회의 몸 프로젝트 -미용성형 산업의 팽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태희원, 2013, “코리안 스타일 성형수술 : 자연스러움의 경합적 의미와 경제 및 효율성으로 이
해되는 몸”, 한국여성학회
수지오바크 저, 『몸에 갇힌 사람들』, 2011, 창비
한서설아 저, 『다이어트의 성정치』, 2000, 책세상
김고연주 외, 『친밀한 적』, “나 주식회사와 외모관리”, 2010, 이후

아시아에서 한류와 의료관광

김종미(영국 Coventry University)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성정체성의 형성 - 성형수술과 의료관광을 중심으로’는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관광형태인 의료관광, 특히 성형수술을 중심으로 한 의료관광 행위현상의 확산을 통해서 한류와 성형수술 관광 그리고 여성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의료관광은 서구 (미국이나 유럽) 환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제 3세계 (예를 들어 태국이나 중국) 국가에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현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Jones, 2008; Reisman, 2010; Bell et al. 2011). 이러한 전통적인 의료관광행위에 대한 분석은 서구중심적인 시각에서 서구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의료관광의 경향은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분화되고 특정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화를 통한, 즉 서구중심적인 접근법은 의료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 지역이나 국가의 특수한 맥락을 간과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확산 및 증가되고 있는 성형수술 의료관광은 사회과학자들에게는 주목할 만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우선, 여성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는 성형수술은 특수한 치료목적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몸 가꾸기의 문화 (makeover culture)’의 하나로 확산되고 있으며 여성의 정체성 형성이라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다. ‘몸 가꾸기의 문화’ 현상의 확산은 여성이 자신의 몸을 가꾸거나 조작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여성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서 바라보아야 한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현상은 한국을 허브로 하는 의료관광산업의 급속한 팽창이다. 특히 한국-일본-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종의 국제적인 협업형태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여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성형수술 의료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분업의 형태가 가장 흥미롭게 나타나는 분야가 바로 소위 ‘줄기세포 성형수술 (stem cell cosmetic surgery)’분야이다. 줄기세포 성형수술은 아직 확실하게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경계가 모호한 분야로서 자신의 신체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배양한 후 다시 자신의 얼굴을 포함한 노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주입하여 조직을 재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기도 하다.

법적이고 규제상 모호성으로 인해 이 성형수술방법은 한국에 위치한 병원에서는 시술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과 같은 국가와의 분업 (줄기세포의 추출-배양-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몸 가꾸기 기술 (줄기세포 성형수술)을 중심으로 의사나 소비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의료관광 관계자들이 어떻게 성형수술 의료관광의 개념을 구성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및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생명공학 기술과 의료기술이 여성의 몸가꾸기 문화와 결합되면서 소비자로서의 여성은 자신의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여성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게 될 것이다.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자기 정체성 구성과정에 있어서는 2002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한류의 확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여성의 몸가꾸기 문화의 확산에서 한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형수술의 확산현상과 성형수술 의료관광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함의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성형수술 의료관광 네트워크의 확장에서 나타나는 한류의 영향과 의료기술의 결합 그리고 여성의 자기정체성의 형성의 주제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본 연구는 기존 단학문적이고 서구중심적인 관점에 기초한 접근방식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 다학제적인 특정한 맥락에 입각하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복잡성이 갖는 특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네 가지 연구영역을 결합한 형태의 연구가 될 것이다. 우선, 여성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여성성 (new femininity)의 문제와 성형수술을 포함한 몸가꾸기의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국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분석하게 된다 (Gill, 2007; Kim, 2010). 최근 문화연구와 여성학 분야에서는 성형수술을 포함한 몸가꾸기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Gilman, 2000; Davis, 1995, 2003; Gimlin, 2007; Holliday & Sanchez-Taylor 2006).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형수술의 문제를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의해 남성중심의 시각에 의해 형성되는 여성성으로 이용당하고 착취되는 형태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Morgan 1991), 일부 학자들은 여성성의 정상화 과정으로서 바라보고 있다 (Davis, 1995).

이러한 이론적인 논쟁에서 경험적인 논의는 주로 서구사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한국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여성의 정체성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성형수술과 몸가꾸기의 문화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소수 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지만(Holliday & Elfvig-Hwang, 2011), 연구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서구의 논쟁에서 제시되고 있는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Kim, 2012). 본 논문은 서구중심의 일반화된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이라는 특수한 맥락에 기반하여 여성의 정체성과 새로운 여성성의 형성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즉, 어떻게 한국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몸 가꾸기의 문화를 바라보고 있으며 성형수술이라는 소비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재구성된 신체를 어떻게 새로운 여성성 구성의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최근 새롭게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성형수술 의료관광분야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연구에서 성형수술 의료관광의 문제는 서구의료관광 소비자들의 주요 방문국이었던 태국이나 코스타리카 등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왔다 (Jones, 2008; Ackerman, 2010; Bell et al. 2011). 그러나 최근 한국은 새로운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주요 소비자들도 전통적인 서구의 의료관광 소비자들이라기 보다는 중국과 일본 및 러시아와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Woo, 2004; Holliday & Elfvig-Hwang, 2011). 지난 2011년에 의료관광산업은 1억 16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되고 있으며, 그 중 약 1/4이 중국과 일본 및 동북아 지역에서 온 환자들이 소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onnell, 2011). 특히, 한국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러한 의료관광이 정책적으로 촉진되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김기홍, 2010; 김상만, 최문경 & 오재영 2009; 윤성용, 이재국, 류시원 2010). 또한 한국정부는 2020년 까지 의료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숫자를 100만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정책적이고 경제적인 효과의 측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뿐이며 의료관광의 문화적인 영향이나 국내외 소비자들, 특히 여성들의 의료관광산업의 이용을 통한 몸가꾸기 전략으로의 활용에 대한 논의그리고 여성학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다양한 성형수술기술의 확산과 소비형태를 분석하고 여성소비자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식과 이용전략에 대해서 분석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여성학적이고 문화분석적인 연구에 새로운 의료기술과 몸 가꾸기 문화의 결합형태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 여성학이나 문화연구에서 과학기술 또는 의료기술은 일종의 '주어진 고정화된' 생산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과학기술학의 연구성과를 통해서 의료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 예를 들어 여성소비자들이나 페미니스트, 의사, 정부, 과학자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번역되어 새로운 과학분과 (예: 재생산 과학)가 형성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Clarke, 1998; Wajcman, 2004). 이러한 과학기술학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줄기세포 성형수술을 포함한 성형수술 의료관광의 기술들이 어떻게 연관행위자들에 의해서 그 의미가 번역되고 재구성되는가에 대한 형성과정을 조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여성들의 새로운 성형수술 의료기술의 소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소비하게 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여성의 자기정체성의 형성 과정에서 의료기술의 결합과정을 볼 수 있는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확장되고 있는 성형수술과 성형수술 의료관광 네트워크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한류의 확산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디어 연구를 통해서 미디어에 나타나는 신체의 이미지와 성형수술의 요구 사이에는 강력한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Clark & Tiggemann, 2006; Henderson-King & Brooks, 2009; Swami, 2009). 한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성형수술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 되고 있으며 서울은 현재 아시아의 '성형수술의 수도'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성형수술제공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유지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한류를 통한 '한국의 미적 기준'의 확산으로 볼 수 있다 (Ko, 2004 Hong, 2013). 이러한 한류를 통한 한국의 미적 기준의 확산은 특히 새로운 여성성 (new femininities)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북 아시아의 새로운 여성성의 형성과정을 한국의 여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로 확장하여 아시아 여성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 나아가 그로 인한 문제점을 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Ackerman, S. (2010) 'Plastic paradise: transforming bodies and selves in Costa Rica's cosmetic surgery tourism industry' *Medical Anthropology* 29 (4): 403-423.
- Bell, D, Holliday, R. Jones, M. Probyn, E. & Sanchez Taylor, J. (2011) 'Bikinis and bandages - an itinerary for cosmetic surgery tourism' *Tourist Studies* 11 (2): 139-155
- Clark, L. & Tiggemann, M. (2006) 'Appearance culture in nine-to 12-year-old girls: media and peer influences on body dissatisfaction' *Social Development* 15(4): 628-643
- Clarke, A. (1998) *Disciplining Reproduction: Modernity, American Life Sciences and the Problem of Sex*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ok, P. (2010) 'Constructions and experiences of authenticity in medical tourism: the performances of place, spaces, practices, objects and bodies' *Tourist Studies* 10 (2): 135-153
- Davis, K. (1995) *Reshaping the Female Body: Dilemmas of Cosmetic Surgery* (London: Routledge)
- Davis, K. (2003) *Dubious Equalities and Embodied Differences*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 Gill, R. (2007) 'Postfeminist media culture: Elements of a sensibility'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0 (2): 147-166
- Gilman, S. (2000) *Making the Body Beautifu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imln, D. (2007) 'Accounting for cosmetic surgery in the USA and Great Britain' *Body & Society* 13 (1): 46-60
- Henderson-King, D. & Brooks, K.D. (2009) 'Materialism, sociocultural appearance message, and paternal attitudes predict college women's attitudes about cosmetic surger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3: 133-142
- Holliday, R. & Sanchez-Taylor, J. (2006) 'Aesthetic surgery as false beauty' *Feminist Theory* 7(2): 179-195.
- Holliday, R. & Elfving-Hwang, J. (2011) 'Gender, globalization and aesthetic surgery in South Korea' *Body and Society* 18(2): 58-81
- Jones, M. (2008) *Skin Tight: the anatomy of cosmetic surgery* (Oxford: Berg)
- Jones, M. (2011) 'Clinics of oblivion: makeover culture and cosmetic surgery tourism' *PORTAL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International Studies* 8(2)
- Kim, Jongmi (2011) 'Is the Missy a new femininity?' in R. Gill & C. Scharff (eds) *New Femininities: Postfeminism, Neoliberalism and Subjectivity* (London: Palgrave Macmillan): 147-160.
- Kim, Jongmi (2012) *Women in South Korea: New Femininities and Consumption* (London: Routledge)

- Ko, Yu-Fen (2004) 'From Hari to Hanliu', 13th JAMCO Online International Symposium (February-March 2004)
- Morgan, K. (1991) 'Women and the knife: cosmetic surgery and the colonization of women's bodies' *Hypatia* 6 (3): 25-53
- Reisman, D. (2010) *Health Tourism: Social welfare through international trade* (Cheltenham: Edward Elgar)
- Swami, V. (2009) 'Body appreciation, media influence, and weight status predict consideration of cosmetic surgery among female undergraduates' *Body Image* 6 (4): 315-317
- Wajcman, J. (2004) *Technofeminism* (Cambridge: Polity Press)
- Woo, K.J. (2004) 'The beauty complex and the cosmetic surgery industry' *Korea Journal* 44 (2): 52-82
- 김기홍 (2010) '신성장동력 서비스산업으로써 우리나라 국제의료관광산업의 고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11(2): 189-208
- 김상만, 최문경, 오재영 (2009)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가 의료관광품질의 기대형성에 미치는 영향' *품질경영학회지* 37(4): 87-99
- 윤성용, 이재국, 류시원 (2010) '일본인 관광객의 의료관광상품 선호도 영향요인분석' *병원경영학회지* 15 (4): 165-190
- 홍석경(2013)세계화와 디지털 문화시대의 한류

성형유혹은 미디어를 타고

-미디어에 등장하는 성형과 외모차별 문제

윤정주(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남편 친구들이 남편에게 방글라데시에서 원숭이를 사왔냐고 했어요. 남편과 각방을 쏘는지는 1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아이 친구들이 ‘너희 엄마는 남자처럼 생겼다’고 놀려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요.”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그렇지만 너무 못생겼다고 노래하지 말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능력이 없으니 그만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일을 시켜보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거 아니에요.. 일을 하나도 시키지 않았으면서 능력 없다고 출근한 지 이틀 만에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위 내용은 이제 새롭게 시즌을 시작한 <Let美人3>(스토리온) 지원자들의 사연이다. 단

Daum을 시작페이지로 6 감용석 882 윤정주님 Daum

Daum 지식 검색 통합검색

카테고리 전체 지식 Q&A 라이브 Q&A 오픈자식 지식투표 고민 Q&A 아이템자식

지식 > 건강, 의학

Q **렛미인 시즌3 페이스라인성형외과** 1 4도 궁금
돈델미라(rlad*****) | 2015-06-03 15:45 | 조회 192 | 답변 1

안녕하세요 렛미인 시즌3를 관심 갖고 있는 20대 중반 여자사랑 입니다

성형에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상이 바쁘다 보니 생각만하고 결심을 못하고 있네요

근데 이번에 렛미인성형외과 시즌3 또 시작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양다솜편이 또 생각나네요 ☹

저도 양다솜 케이스라 많이 공감되더라구요,,, 이번에 성형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버렸어요..

양다솜씨가 머디서 어떤 성형을 받았는지 알고싶어요~

답변해주세요~

댓글쓰기

이 질문에 답변하시면 지식머니 5, 채택시현 30 을 드립니다.

답변하기

지 외모 때문에 남편과 그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자신의 아이에게 미안하고 꿈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하고, 회사에서 잘린다.

그리고 옆의 그림은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글을 캡처한 것이다. <Let美人>을 보고 수술을 결심한 한 여성이

이 프로그램에 협찬한 성형외과가 어디인지를 묻는 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외모에 대해 집착하는 것일까? 사회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왜 이렇게 성형에 대한 광풍이 불고 있는 것일까? 미용 산업 발전, 성형에 대한 인식변화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미디어에서 조장하는 외모지상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2003년 VS 2013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서는 그 동안 꾸준히 미디어의 외모지상주의 조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2003년에는 지상파방송의 뉴스, 오락, 드라마, 교양 다큐멘터리 등 전 장르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인물의 외형과 역할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장르에서 여성 출연자가 남성 출연자에 비해 더 마른 몸이었고 더 화려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고 나이는 어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연, 주 진행자의 경우 조연과 보조 진행자보다 더 예쁜 외모와 화려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으며 나이도 더 어렸다. 특히 드라마의 경우 외모가 뛰어난 여자 주연은 여자 조연에 비해 유능한 것으로 주로 묘사되었다. 또한 여자 조연에 비해 보다 더 예쁜 외모에 젊은 여자 주연은 여자 조연에 비해 좀 더 이성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에 유능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⁵⁾

버라이어티 쇼 오락의 경우 남성 연예인의 경우 보통이거나 못생긴 인물이 많이 등장하는 반면 여성 연예인의 경우는 예쁜 외모를 가진 인물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 진행자의 경우 여타 다른 진행자 또는 리포터에 비해 더 예쁘고 더 마른 몸을 가졌으며 차림새 또한 가장 화려하였다.⁶⁾

이는 10년이 지난 2013년 지금도 유효한 결과이다.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출연자를 보면 남성의 경우 정형돈, 길, 강호동, 샘 해밍턴, 하하, 이수근 등 뚱뚱하거나 키가 작은 연예인도 주 출연자인 경우가 있지만 여성의 경우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드물다.

5) <텔레비전 인물의 외형과 역할에 관한 분석> 2003.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p. 29 참조

6) 위 보고서 p.34 참조

드라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지상파에서 주연으로 출연하는 여성연예인의 대부분(이보영, 문근영, 송지효, 남상미, 고현정, 손예진 등)은 뛰어난 외모를 소유하고 있으며 변호사, 도공, 라디오 작가, 초등학교 선생 등 유능한 전문직 직업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미디어는 지속적으로 예쁘고 마른 몸의 소유자를 주연 또는 주 출연자로 출연시키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미디어의 메시지에 지속적이고 누적적으로 노출되는 시청자들은 미디어가 요구하는 외형의 전형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며 이를 개인의 가치화하고 성형수술 등을 통해 연예인의 외모를 만들고 그들이 입은 옷을 입고 장신구를 하는 등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⁷⁾

-양악 수술, 보편적 성형수술이 되다

언제부터인지 연예인들의 성형수술은 용기 있고 쿨한 고백이 되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오락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에게 성형수술을 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도 상당히 자연스럽고 노골적이다. 그 동안 성형수술은 쌍꺼풀 수술, 코 수술, 눈 트임 수술 등 소소한(?) 수술이 주를 이뤘다면 얼마 전부터는 이름조차 낯설었던 양악 수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미지로 먹고사는 연예인들의 성형수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들이 양악 수술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들의 성형 사실을 소비하는 미디어의 행태이다.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오프라인 미디어와 인터넷 신문 등 온라인 미디어에서는 성형수술을 한 연예인들을 지속적인 이슈로 다루면서 성형수술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특히 방송의 경우 대표적으로 연예정보프로그램을 통해 끊임없이 성형수술을 한 연예인들을 비교, 분석하고 가장 예뻐진 연예인들의 순위를 매기는 등 성형 불감증을 유발 하고 있다.

7) 위 보고서 p.43 인용

오락프로그램에서는 성형수술로 이슈화된 게스트를 출연시켜 이들에게 성형 사실을 눈물(?)로 고백할 시간을 주면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예뻐지면 그만이라는 식의 면죄부를 주는 등 은근히 성형을 부추기기까지 한다. 그리고 필러, 보톡스 등은 '시술'로 언급하면서 누구나 다 하는 가벼운 것으로 취급한다. 특히 끊임없이 못생긴 연예인들에게는 성형수술을 권유하고 예쁜 얼굴은 '선'으로 못생긴 얼굴은 '악'으로 구분 지으면서 윤리적인 잣대까지 들이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안미인선발대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끊임없이 어려워 보이는 외모를 칭송하면서 자연스럽게 늙어갈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때문에 이제는 드라마에서 조차 엄마가 언니인지 누나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나이든 배우가 배역에 맞지 않은 외모를 가지고 출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미디어, 외모와 성형에 대해 그 입 다물라

얼마 전 한 종편 채널 연예정보프로그램에서 연예부 기자들의 성형수술에 대한 방담을 방송하였다. 출연 기자 한명이 어떤 걸그룹 멤버 중 한명의 배가 너무 예뻐서 비결을 물었더니 갈비뼈를 빼는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끝내 그 수술을 받은 걸그룹 멤버가 누구인지, 그런 수술이 정말 있거나 한건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믿거나 말거나이다.

외모에 대한 비정상적인 열풍은 막을 수 없다. 다만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이다. 조금이라도 열풍을 잠재우고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가장 크다.

다시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1996년도에 민우회에서는 외모지상주의와 여성의 획일적인 미의 강요가 바로 미인대회임을 주목하고 '시청자사업위원회'에서 '미인대회중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상파방송에서 미스코리아대회 중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동을 하였고 2002년에 마침내 지상파 중계가 중단되었다. 그 결과 많은 여자 어린이들의 꿈을 바꾸어 놓았다. 그 동안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온국민의 눈과 귀를 주목시켰고 많은 여자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이었다. 이러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지상파에서 중계를 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미디어에서 외모와 성형수술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외모와 성형에 대한 광풍을 조금은 잠재울 수 있다. 이를 위해 미디어는 의식적으로도 최소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 프로그램 또는 기사 내에서 연예인의 성형수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말 것

둘째, 동안선발대회 같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지 말 것

셋째, 의도적으로 다양한 외모의 출연자를 출연시킬 것. (특히 여성 출연자)

넷째, 오락프로그램에서 성형수술을 너무 가볍게, 웃음거리로 다루지 말 것

다섯째,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성형수술 방법을 획기적인 수술로 소개하지 말 것

마지막으로 미디어 종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신들의 프로그램 또는 기사가 어떤 사회적 과급력을 가져 올 것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성찰 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프로그램과 기사가 누군가의 인생을 슬프게 바꾸어 놓을 수 있으므로.

의료 상업화의 첩병, 미용성형산업 - 의료 측면의 규제 방안

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한국의 미용성형 실태

ECONOMIST지는 2013년 1월 기사에서 한국이 성형시술/수술 1위인 국가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미용성형외과의사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ons)가 매년 추계하는 성형시술/수술 통계를 각 나라의 인구수로 보정한 결과다. 국제미용성형외과의사협회가 추계한 2011년 성형시술/수술 건수로만 따지면, 한국은 미국, 브라질, 중국, 일본, 멕시코, 이탈리아에 이어 7위다. 하지만 이를 각 나라의 인구수로 나누면 한국은 인구 1만명당 6.5건으로 단연 1위다(그림 1 참조).

이 통계는 실제 시술/수술 건수를 모두 집계한 것은 아니고 매년 각국의 성형외과의사들이 보고한 사례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추정된 것이다. 해당 국가의 국민 기준이 아니라 해당 국가 국민이 아니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시술/수술을 받은 이들은 그 국가 통계로 잡힌다. 성형외과 의사가 행한 시술/수술만 사례 보고되니 일반의나 피부과 의사 등 다른 전공자들이 행한 시술/수술은 누락되어 실제 행해진 성형시술/수술 건수보다는 과소추계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 확인 가능한 수준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통계인 것은 사실이다.

이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비수술적 시술은 보톡스 주사, 수술은 지방 성형수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한국의 다빈도 성형 시술/수술건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술/수술들은 주로 노화된 피부 등을 회춘시키거나 스테레오타입화된 형태의 외모를 갖추기 위한 것들이다(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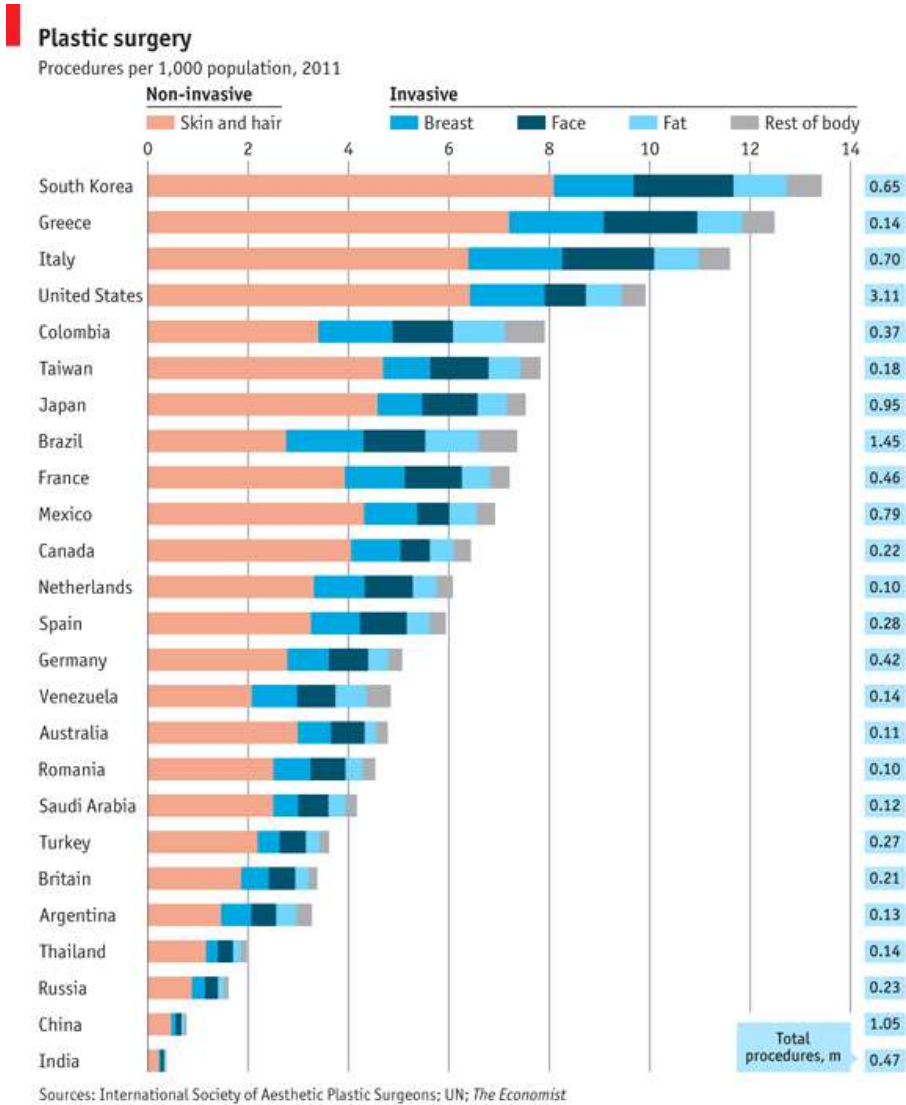
표 2 한국의 다빈도 성형시술/수술건수(2011년)

(단위 : 건)

구분	비수술적 시술		수술	
1위	보톡스 주사	145,688	지방 성형수술	51,200
2위	하이알유로닉산	90,133	유방 확대수술	35,325

	주사			
3위	레이저 제모	52,825	코 성형수술	31,863
4위	자가 지방 주사	23,175	쌍꺼풀 수술	29,050
5위	IPL 레이저 시술	22,225	복부 성형수술	19,800

※ 자료 : 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ons, 2012.



Economist.com/graphicdetail

그림 2 각국의 인구 1000명당 성형시술 및 시술건수(2011년)

※ 자료 : ECONOMIST, 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ons

한국의 미용성형시술/수술은 이미 국제적인 것이 되었다. 인근 국가에서 시술/수술 받기 위해 의료 관광을 오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른 바 ‘한류’ 등의 영향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이들이 미용성형 시술/수술을 받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연예인뿐 아니라 정치인도 피부 관리는 기본이 되었다.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면접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취업 준비로 이러한 시술/수술을 받는 이들도 늘고 있다.

미용성형의 산업적 기반과 주요 추진 동력

어느 나라에서나 미용성형시술/수술을 받는 이들의 소망과 욕구는 비슷하다. 그녀/그들은 사회적 성공, 보다 나은 사람과의 사랑 등을 원한다. 사회적 성공과 사랑을 위해서는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외모가 사회적 성공과 사랑의 성취에 있어 중요하다고 증명하는 사례들이 넘쳐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녀/그들의 선택은 당연하다. 경제적 능력만 허락된다면 외모를 바꾸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여성이 아름다워지고자 노력한 것은 인류의 역사 이래로 지속된 사실이고, 오늘날 미용성형시술/수술은 과거의 화장술 혹은 신체 변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한다. 수술 및 마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미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의 수단이 훨씬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유사 이래로 아름다운 이들이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얻거나 더 나은 사랑을 얻었던 것은 고고학적 혹은 인류학적 사실인데, 과거에는 이러한 미가 ‘천부적’인 것이어서 본인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공평이 존재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을 바꿀 수 있게 됨으로써 ‘미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1960년대 서구 페미니즘의 구호를 차용해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나의 몸을 바꾸려는 선택은 각각의 여성에게 고유한 권한이라며 페미니즘 소비자주의를 천명하는 이들도 있다.

물론 미용성형시술/수술을 받아 아름다워지려는 이들의 욕망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신체발부 수치부모’라고 어떠한 신체 변형이라도 부정적으로 보는 보수적/도덕적 태도는 이러한 현상 이면의 부작용을 드러내고 치유하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그러한 욕망의 흐름이 상업적으로 왜곡된다는 것이고, 그 와중에 그것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이 있으며, 그것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용성형시술/수술을 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더 예쁘고 더 젊어 보이는 이들이 취업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며, 사랑에도 성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비용과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용성형시술/수술을 받을 이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지만 아름다운 이들이 호감을 얻고 좋은 평판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정형화되거나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다. 외모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는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기준도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다. 꼭 코가 오뎝하니 높고 쌍꺼풀이 있으며 피부가 반질거려야 아름다운 것일까? 이러한 아름다움의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인가? 나이 들어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은 추한 것이라고 누가 평가하는 것인가? 자연스런 노화조차 거부해야 하는 현실은 누가 조장하고 있는 것인가?

날로 거대해져 가고 있는 미용산업과 매스미디어의 행태와 마케팅 전략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런 욕망을 교묘히 이용해 획일화된 방향으로 이끌고 그 안에서 이윤을 착취하려는 이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드러내야 한다. 말로는 '여성의 선택', '여성중심주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을 상품 소비의 주체로만 호명하고, 여성은 무엇보다 '외모'가, 그것도 스테레오타입화된 외모가 중요하다는 기존의 가부장적 상식만을 보수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이 산업의 실체 말이다.

한편 이와 같은 '미의 민주주의'는 '천부적'인 것에 의해 운명이 좌우되는 봉건적 질서를 넘어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술/수술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미래가 바뀐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천부적 능력'이 아닌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인생의 운명이 좌우되는, 철저히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임이 언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향이 더 커질수록 사회적 불평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용성형시술/수술 비용이 싸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이는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미용성형에 대한 '의료'적 규제 방안

비수술적인 미용성형시술이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다수의 미용성형은 수술적인 기법을 사용한다.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있다. 미용성형수술도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

다. 마취기술, 수술기술, 통증관리기술 등이 발전해 부작용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
지만, 출혈, 감염, 혈전증 등의 위험뿐 아니라 사망의 위험도 있다. 스웨덴에서 이루어
진 한 연구에 따르면 유방성형술을 받은 이들이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이 증가했다는
결과도 존재한다. 물론 이는 미용성형수술의 직접적 부작용은 아닐 가능성이 많지만,
여성의 진정한 요구에 미용성형수술이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간접적 지표가
될 수는 있다.

모든 수술에 동반되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 영역의 '전통적' 관리
방식은 엄격한 수술 적응증의 적용과 수술 집도의사의 질 관리를 통한 '자가 규제'다.
전통적인 의료 영역에서 본인이 원한다고 무조건 수술을 하는 상황은 상식적이지 않
다. 전통적인 외과의사들은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의학적으로 면밀히 평가하고, 수술
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과 부작용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술 여부를 결
정한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수술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이러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말아야 한다(Do not harm!)"는 것이다. 환자의 몸과 건강, 생명과 관련된 결정
이기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더불어 수술 집도 의사 및 수술 방법에 대한 질 관리를 통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가 규제 시스템을 운영한다. 모든 외과 의사들은 자
신의 영역에서 최소 4년 이상의 훈련 과정을 거치며 그러한 표준을 습득하고 내면화
한다. 그리고 이들은 학회나 협회 등에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는다. 등록된
의사들의 기술적 문제나 윤리적 문제를 평가하고 징계하는 것도 많은 부분 집단적인
자가 규제에 맡겨진다. 각 전공 영역별로 수술의 부위와 종류를 정해 각기 다른 전공
영역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불문율을 정해 운영하는 것도 넓
은 의미의 자가 규제에 해당한다.

시대가 바뀌고 의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전통적' 의료 규제 방식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
다. 전문가들의 폐쇄적 내부집단(inner circle)에서 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에게 최대한 적절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 상
태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의료인
들의 자가 규제 시스템에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의료인

들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자가 규제 능력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 종종 연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규제 수준을 높여 더 높은 수준의 질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도전도 만만치 않다. 이는 주로 '의료의 상업화' 경향 때문에 가속되고 있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이윤 논리가 주된 판단 요소로 개입됨에 따라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치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전혀 의학적이지 않고, 치료 방법도 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과잉 진료, 사이버 진료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영역의 특징 중 하나는 이러한 치료방법을 행하는 이들에게 일정한 가격 기준이 요구되지 않기에, 어떤 전공 영역의 의사들도 해당 영역에 진입하는 데 아무런 장벽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영역에서는 표준적인 진료지침도 만들어지기 어렵게 되고, 자가 규제는 더욱더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대표적인 영역이 비만 치료 영역이고, 미용성형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

미용성형 영역에서 수술/시술 여부의 결정에 의사들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많은 미용성형 의료기관에서 이른 바 '코디네이터' 혹은 '상담실장'이라 불리는 이들이 카운터에서부터 환자를 맞이하여 설득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들이 수술/시술의 부작용을 제대로 알려 줄 능력도, 의지도 없음은 명백하다. 환자의 경제적 배경을 예측하고 이에 맞춤형 미용성형수술/시술을 권하는 기법만이 발달할 뿐이다. 수술/시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꼭 확인되어야 할 환자들의 기본 건강 상태나 질병력 등은 무시되기 마련이고, 과다한 미사여구와 홍보로 환자가 비현실적이고 과다한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경우도 허다하다.

미용성형수술/시술을 행함에 있어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기에 어떤 의사라도 혼자서 기술을 익혀 이 영역에 뛰어 들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심지어 이제는 불법과 합법의 애매한 경계에서 비의료인이 이러한 수술/시술을 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의료적 '표준'이 있을 수 없고, 자가 규제 시스템이 작동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미용성형에 대한 1차적 규제 방안은 '전통적' 의료 규제가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여기에 더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사회적 개입을 강화하는 방식의 새로운 의료 규제 방식을 도입하여 그 효과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기존 법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시, 단속이 필요하다. 현행 법상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면허 의료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법을 어기면 면허자격이 정지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관계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미용성형수술/시술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여야 한다.

둘째, 성형외과학회 등이 중심이 되어 미용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조건을 정하고, 이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이들만이 미용성형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자격조건에는 적절한 교육 훈련 기간 및 내용을 이수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부적인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이와 같은 자격 인증을 받은 의사를 중심으로 협회 등을 구성하게 하여 협회가 자체적으로 미용성형수술/시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감시, 감독하게 하여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상업화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이러한 전통적 의료인 자가 규제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 공급 규제의 측면에서 서비스의 절대 양을 조절할 수 있을 가능성 측면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

셋째, 확장된 의미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환자 본인이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가진 후에만 미용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고안해 볼 수 있다. 성형외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여성 상담가 등으로 이루어진 상담자 풀을 구성하고, 미용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이는 이들로부터 해당 수술이 가질 수 있는 효과, 이점, 부작용, 단점 등에 대해 가감 없이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수술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점, 수술이 아니라 다른 측면의 노력으로 환자의 욕구 충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2주 정도 숙고할 시간을 가지고 수술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면 필요 없는 수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보다 근본적으로 미용성형 영역 뿐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업적

사이비 치료에 대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사적 의료기관이 대다수인 한국적 현실 속에서 관련 규제가 전무하다보니 미용성형 영역뿐 아니라 비만 치료 영역 등에서 근거 없는 비의학적 치료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 등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하기 힘든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미용성형 '시장' 규제 방안

미용성형수술/시술은 '의료'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상품'이 되어가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미용성형의 이러한 '상품성'을 거세해야지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미용성형이 빠르게 상품화되어가는 현실에서 미용성형수술의 상품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의료' 측면의 규제만으로는 현재 고도로 상업화되어 가는 미용성형산업의 부작용을 적절히 규제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므로 미용성형이 어느 정도 상품이 되어 있는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한 시장', '책임성 있는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처방도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의료' 영역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는 시장에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힘들다. '현명한 소비자'는 서비스의 효용과 질을 평가하고 가격을 고려하여 가격 대비 양질의 서비스를 구매한다. 하지만 미용성형 서비스 이용자들은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용성형 서비스의 효용과 질을 평가하기 힘들다. 그래서 오직 가격 요소만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쉽다. 하지만 사실 서비스 가격도 서로 비교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가격 정보도 입소문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선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미용성형수술/시술 기관이 자신의 서비스 질과 관련된 정보를 제3의 기관에 보고하게 하고, 이 제3의 기관은 이를 평가하고 인증하여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의료기관 서비스 인증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구성해 볼 수도 있다.

둘째, '불법 의료광고'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의료의 특성을 보다 강조한다면, 원칙적으로 의료광고는 금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현행

법으로 금지된 광고가 버젓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철저히 규제해야 하고, 현재의 의료 광고 규제를 보다 엄격히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특정 내용,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특정 방법 등으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형태다. 그리고 특정한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인 중앙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⁸⁾ 그러나 이러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위반 단속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의료인 중앙회

8)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1.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심의 기준·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업무의 위탁 등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서 이루어지는 심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므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의료광고 규제를 아예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하는 방안,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별도의 독립기관을 두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지나친 기관간 경쟁으로 인한 가격 덩핑, 그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용성형 서비스 공급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경쟁이 심해지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격 덩핑이다. 덩핑은 기관간 네트워크화가 진행되면서 네트워크화된 기관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가격이 싸지면 소비자는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의료 영역에서 지나친 가격 인하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악화가 그나마 존재하는 양화를 구축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정한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기관의 감시가 필요하고, 위에서 언급한 정보 공개 제도와 더불어 미용성형수술/시술에 대한 가격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미용성형 규제의 현실화를 위해

지금까지 의료 규제 측면에서, 시장 규제 측면에서 이러저러한 미용성형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언급했지만, 현재의 조건에서 이러한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앞서 언급한 정도의 규제가 현실화되려면 현재의 미용성형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강하게 일어날 하는데 현재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미디어 등에서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공인들의 미용성형수술/시술 경험 공개가 자연스러워졌다. 미용성형수술/시술에 대해 사회가 그만큼 관대해진 것이다. 더구나 현재 정부는 의료 관광과 한류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미용성형 서비스로 돈벌이를 하라고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가 미용성형서비스를 규제할 리 만무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작용 사례를 일부의 사례로 치부하고 꼬리만 잘라내는 방식의 정부 대응이 이루어지기 쉽다. 근본은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미용성형 규제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운동이 필요하다. 미용성형수술/시술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책 담당자들도 이것이 진짜 문제라고 느끼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만들어도 실행되기는 힘들다. 외국의 경우 유방성형술에 사용되었던 실리콘의 부작용이 광범위하게 사회화되면서 미용성형수술/시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된 나라들이 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을 경험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사후약방문격이지 않은 사전예방적 규제가 가능할지 여부는 이를 먼저 문제로 느낀 사람들의 운동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BS 스페셜> 프로그램 기획안

그녀 뼈를 깎다 - 내 딸의 양악 수술

방송일시 : 2013년 5월 26일 밤 11시 15분

연출 : 박상욱 작가 : 윤주희

성형수술의 확산이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을 나이프스타일(Knife Style)로 바꾸고 있다

-수잔 보르도, 미국 사회학자

양악수술이 작은 얼굴과 v라인을 만들어주는 수술로 여겨지면서, 한 해 추산 약 5000건의 수술이 이뤄질 만큼 열풍이 불고 있다. 생활의 불편함이나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수술이 언제부터인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수술을 받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자 선택의 문제라는 이유로, 지금 일어나는 양악수술 열풍과 이를 부채질하는 우리사회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양악수술 열풍은 TV나 신문 속 이야기를 넘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현실적인 일이 되었다. 실제 많은 부모들이 양악수술을 원하는 자녀와 갈등 중이며, 자녀들을 말릴 방법을 찾느라 고심한다. 예전보다 안전해졌다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받고 있다면, 당신의 자녀 역시 양악수술을 받아도 되는 걸까? 유행이라고 자녀를 수술대에 놓힐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것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양악수술 열풍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외모만 바뀌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거라 착각하게 만드는 외모지상주의 사회. 이 수술은 정말 그들이 원하던 꿈을 이루게 해주는 것일까? 이번 방송은 양악수술을 받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예뻐지기 위해 목숨 건 수술도 감수하게 만드는 우리사회의 단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양악수술, 새로운 갈등을 싹틔우다.

부모는 '고작' 예뻐지기 위해서 이렇게 큰 수술을 감수하려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한다. 반면 자식들은 예뻐지는 것을 '고작'으로 표현하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한다. 평행선을 달리는 이 갈등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시각차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지난 2,30년 동안 '예쁜 얼굴'에 대한 선호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준다. 이제 양악수술은 美(미)에 대한 첨예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게 하는 촉매제이자, 한 가족 안에 새로운 갈등거리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이 갈등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강순 씨는 요즘 자주 머리가 아프다. 둘째 딸이 양악수술을 받겠다고 선언한 후, 하루가 멀

다하고 언쟁을 벌인 탓이다. 그녀는, 못생긴 외모가 아닌데도 턱을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겠다는 딸을 이해할 수가 없다. 반면 그녀의 딸은 콤플렉스를 없애주고 동시에 예뻐지기까지 하는 이 수술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엄마가 답답하다. ‘저는 해야 되요.’ 확고한 어투로 말하는 딸, 그 딸이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강순 씨는 오늘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수술은 진정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개그우먼 강유미 씨는 2011년 1월 양악수술을 받았다. 달라진 외모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그녀는 양악수술의 열풍의 시작점이기도 했다. 2년하고도 4개월 지난 지금, 그녀의 일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양악 이후 변화된 것과 변화되지 않은 것, ‘막연히’ 양악수술의 효과를 가늠하는 사람들에게 그녀의 고백은 의미 있는 답이 될 것이다.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느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신감이 별로 안 생겼어요. 되게 모순되게 들리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두 ‘얼굴’에 간혀 있다.

‘작은 얼굴’ ‘v라인’에 대한 선호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선호가 개인의 취향 문제를 넘어, 누군가에게 기회를 제공하거나 박탈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정한 얼굴이 되는 걸 선택해야만 한다.

5월 9일 오후, 장민지씨는 수술대에 올랐다. 그녀는 주걱턱인 자신의 외모가 ‘그렇게 못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턱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큐레이터로 일했던 박물관은 주걱턱인 그녀에게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행사를 맡기지 않았다. 갤러리 면접 때는 ‘예쁜 사람을 뽑고 싶다’며 거절당하기도 했다. 그녀는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튀어나온 턱을 없애기로 했다.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 나이프 스타일(knife style)이 되다.

영국에 살고 있는 비키 라이트는 커다란 주걱턱의 소유자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수술을 권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턱을 없애지 않았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한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말 때문에 바꾸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는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바꾸지 않고, 이 사회 자체를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비키처럼 살 수 있을까.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양악수술 열풍에 몸을 싣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용성형이 ‘자기계발’과 ‘역량강화’, ‘힐링’으로 인식될수록,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수술 자체가 아니다. 오직 자신만이 예뻐지지 못한 채 머물러 있다고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사람들을 괴롭고 외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수술이 무엇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확인할 겨를도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 심지어,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자신의 얼굴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다. 죽음을 담보로 수술대로 향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이 열풍에서 다 같이 내려오는 것은 가능한가.

미용성형과 관련된 법적 쟁점

이한본 변호사(법무법인 정도,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팀장)

1. 미용성형은 의료행위인가

가. 의사의 치료행위의 성격

형법학에서 의사의 치료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환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거나 성공한 치료행위는 건강을 개선하고 회복시킨 것이므로 상해라고 할 수 없고, 실패한 치료행위라도 의술의 법칙에 적합한 때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서 상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의사의 치료행위가 의술의 법칙에 반하여 이루어져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의사가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는 “치료행위”로 보아 법적인 이론을 구성한다. 그런데, 미용성형의 경우는 건강을 개선하거나 회복시키는 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미용성형의 경우도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나. 검토

대법원 1974.11.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는 위와 같은 논리에서 미용성형 수술의 경우는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미용성형 수술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지 않게 되면 무면허 미용성형 수술을 규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성형외과 전문의의 등장, 성형외과 협회의 등장 등을 근거로 미용성형도 의료행위로 보아 규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후에도 법원 미용성형은 의료행위임을 전제로 의료행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해 왔다.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

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2. 미용성형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2006. 12. 21. 선고 2005도9213 판결 등 참조), 특히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애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도9213 판결)

미용성형도 의료행위로 보는 이상, 다른 의료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에게 특히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신중을 기할 의무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미용성형에서도 의사가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입증되어 (미용성형에 있어서는 마취로 인한 부작용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어 신체의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치사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다.

3. 미용성형에 있어서 의사의 설명의무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05.31 2005다5867 판결)

의사가 의료의 법칙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형사처벌은 받지 않음, 최근 설명의무를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김성주 의원 발의로 발의된 바 있음)

4. 광고의 규제

의료법 제56조는 일정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제들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광고가 규제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미용성형 광고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광고 규제를 강화할 것을 관계당국(보건복지부)에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 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대통령령 6.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5. 결론

이상과 같이 법적인 영역에서는 미용성형을 다른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와 동일한 규제가 가능하다. 특히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들에 대하여 규제가 가능하고, 미용성형의 경우에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가 성형 부작용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게 된다면 과도한 미용성형 열풍을 잠재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